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연중 제8주일



변하는 세상 가치의 흐름 안에 변치 않는 생명의 길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9년 성탄 강론 중에 오늘날 그리스도교 신앙이 일상 삶의 바탕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당하고 소외받으며 비웃음마저 사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시대를 지내며,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일상에 자리 잡는 것은 고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유로 신앙이 우리 삶에서 분리되어 상황에 따라 쉴 수도 있는 취사 선택 가능한 것처럼 치부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제1독서의 집회서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헬레니즘 문화의 홍수 속에서 이스라엘 전통 신앙에 의문을 품는 이들에게 신앙의 전통이 주는 지혜를 거듭 강조하기는 합니다. 제2독서의 배경인 코린토는 지정학적으로 항구도시로서 부유했지만, 우상 숭배나, 윤리적 문제와 파벌 싸움, 심지어 부활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1코린 15,12) 마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집회서와 코린토 1서의 시대보다 세상의 가치관이 끼치는 영향이 더욱 커졌습니다. 당장 주변을 살펴봐도, 교회 전통이 수호하고 있는 가치는 마치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것 중 하나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집회서는 그 해답을 지혜의 근원, 곧 주님으로부터 찾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잡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곧 율법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집회 1,1 참조).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시대는 코린토 1서의 시대보다 낮기는 커녕 무엇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코린토 1서는 그 해답을 십자가의 어리석음에서 찾습니다.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1코린 1,18)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지혜는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 그리고 신앙이 선택 가능한 대상으로 전락한 오늘날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마련해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루카 6,34)라고 단호히 말씀하시며,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그 답에 확신을 다시 주십니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생명의 길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세상의 가치관 변화를 초월한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지혜를 통해 변함없이 비추어질 것이며, 이는 주님의 계명 안에서 세상이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진리로서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박진용 프란치스코 신부 | 중동본당 보좌

주일 진례

제 1 독 서	집회 27,4-7
화 답 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제 2 독 서	1코린 15,54-58
복 음	루카 6,39-45

관상: 이미 우리 곁에 계신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하는 것

박재찬 안셀모 신부/ 분도 명상의 집

하느님과의 일치를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과학과 실용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세상 안에서 어떻게 관상적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967년 12월, 관상 수도회 장상들이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겐세마니 수도원에 모였다. 이 모임에서 한 수도자가 토마스 머튼에게 이렇게 물었다. “하느님과의 일치를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머튼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이미 하느님과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꼭 말해야 합니다. 관상적인 기도는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의식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하느님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머튼의 이 답변은 우리가 하느님을 멀리서 찾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다. 관상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신 하느님의 신비를 그분의 은총으로 발견하는 것이다. 영원의 차원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미 우리 곁에 계심을 생생하게 깨닫는 체험이 바로 관상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다. 때때로 별다른 노력 없이 갑자기 관상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일깨우려 선택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느님’이시라는 것이다. 관상은 성령에 의해 하느님의 영역 안으로, 하느님의 자유 안으로, 하느님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때로는 관상을 통해 ‘하느님이 무엇인지를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고통이 수반된다. 그 이유에 대해 머튼은 “하느님은 내가 알 수 있는 ‘무엇’이 아니며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순수한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는 있다’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관상은 하느님을 찾는 체험과 관련되어 있다. 하느님을 찾는 것은 잃었던 무엇을 찾는 것과 다르다. 하느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찾는 것은 내가 아는 모든 곳에 계신 하느님을 찾는 것과 다르다. 그리고 한 번 찾은 하느님이 하느님의 전부도 아니다. 그런데 관상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느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느님의 새로운 면을 찾아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이나 이성 등의 밖으로부터의 앎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의 깨달음이다. 머튼은 관상에 있어 깨달음의 중요성을 『새 명상의 씨』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관상은 우리가 아는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을 모두 초월하여 압니다. 관상은 그 원천의 실재에 대한 깨어남입니다. 관상은 깨어남의 갑작스러운 선물이며, 그것이 실재(real)라는 모든 것 안에서 궁극적인 실재(the Real)를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다는 깨어남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관상은 외적이거나 표면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이고 영적인 것으로의 의식의 전환을 요청한다. 우리 내면의 세상 안에서 궁극적인 실재인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 존재의 표면적 수준 아래를 파고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실재의 다른 측면이나 더 깊은 단계에서 하느님과 자아와 창조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속도, 생산성, 이익, 외적인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 깊은 내면의 영역이나 영적인 체험의 영역에 도달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면의 세상으로 들어가 자신의 자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느님을 찾는 것을 한가한 이들의 사치(?)이거나 비생산적이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적이고 표면적인 허상을 좇으며 살아가던 어느 날 자신의 내면에 찾아온 공허감과 감당하기 힘든 외적·내적 고통, 혹은 거부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우리는 결국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렇게 하느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우리를 찾고 계신 하느님,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쌓아 놓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 우리는 자신을 더 큰 사랑으로 받아 주시는 어진 아버지 하느님, 우리를 따뜻한 당신 품에 안아 주시는 어머니 하느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나 자신이 하느님을 찾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분은 늘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다만 자신이 눈이 어두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위드코로나, 네거티브, 깐부, MZ세대, 내로남불…… 지난해 우리가 많이 들은 단어들입니다.
 들고 마음 따뜻해지는 ‘사랑과 희생’이라는 단어를 기억나게 해 주신 임마누엘 장학회 후원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2022년 2월 27일
 천주교 마산교구 임마누엘 장학회 이사장 총대리 최봉원 신부

○ 2021년 장학금 후원 현황

연 도	수 입	금 액	구 분	지 출	금 액
2021	전년도 이월금	809,244,188원	상반기	중학생 7명×300,000원	2,100,000원
				고등학생 7명×500,000원	3,500,000원
	예금 이자	12,506,982원	하반기	중학생 6명×300,000원	1,800,000원
				고등학생 7명×500,000원	3,500,000원
	후원금	48,280,000원	특별 장학생	중학생 4명, 고등학생 2명	5,600,000원
			계		16,500,000원
	계	870,031,170원	잔 액		853,531,170원

강현수, 故 윤문석, 김계정, 김덕실, 김민정, 김상학, 김완수, 김홍양, 김항성, 박미숙, 박승엽, 서광숙, 서영협, 신철수, 엄선용, 이기태, 이송학, 이영기, 전옥희, 지무영, 진선미, 한지원, 부산교구 빈민사목, 익명의 후원자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매달 첫 주일 은인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산교구에서 운영하는 임마누엘 장학회는 故 박주선(안토니오) 신부님께서 기부하신 기금을 바탕으로 1996년 1월 4일 설립되었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업성적이 우수하지만 생활이 어려운 1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교구가 운영하는 청소년 기관 이용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목표 적립금 10억에 많이 부족하지만 후원자님들 덕분에 매년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장학 사업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뜻깊은 일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후원 계좌 안내

국민은행 651-01-0800-750 예금주: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후원자님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올바르게 등록되었는지, 소중한 후원금이 잘 입금되었는지 전화로 꼭 확인해주세요.

▶ 천주교 마산교구 임마누엘 장학회 문의: 055·249·7016, E-mail: mssamu@hanmail.net

“나의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느님(절대자)을 향한 존재이다.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밝히려는 것은 인간 본질에 관계된 영역이다. 여러 세대를 걸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은 윤리학과 정치학에서 보편적 해답을 찾고자 고민하고 있다. 무엇이 옳은가는 각 사회마다 답이 다르고, 일정한 사회 안에서 단 하나의 정답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그 답을 찾으려 한다. 가치판단의 객관성에 관계된 모든 문제는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끊임없는 논란의 주제이다. 어떤 두 사람이 도덕적 문제에 대해 상반된 해답을 제시한다면, 그 답은 진위 여부보다는 취향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받던 이도 그답지 않은 행동을 하면 순식간에 냉소적 평가를 받는다. 인간(성)이 좋건 나쁘건 간에 어떤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본질이 생활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인간은 시공간의 수많은 요인이 조합되어 그 현재를 보여준다. 현재의 자신은 태고 때부터 시작된 수많은 상황들이 기묘히 섞여 보이는 결과이다. 인간은 그저 생성하고 변화하는 존재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 인생 여정 속에서 하느님(절대자)께서 창조하시고 의도하신 그 본질과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한다.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은 예수의 가르침 안에서 명확히 전하고 있다.

특정한 역사적 인물인 예수는 신이며, 하느님과 인간의 중재자라는 그리스도교적 주장은 이성적 인간 사고에 도전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내(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가르침을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위선자들과 다를 바 없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자신의 취향으로 선택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선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 공동선을 위해 세상과 이웃에 자신의 능력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공간에 좋은 것을 채워가는 여정이다. ‘좋은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선한 이는 선한 공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이는 악한 공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라는 말씀대로 하느님(절대자)을 향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자신의 공간에서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내놓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 취향 여부가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선택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자신의 공간에 필요하고 복된 노고로 좋은 것들을 채워 나가는, 하느님(절대자)을 향한 존재로서 흔들림 없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 확고히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길 바란다.

하느님 전상서

김시탁 스테파노 시인/ 가톨릭문인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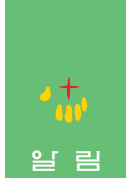
하느님,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는 평안하십니까.

행여 천사들이 속을 태우거나 사탄이 기웃거리려 하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요.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세상은 코로나라는 고약한 역병이 번져서 사람들이 죽을 맛입니다. 2년째 마스크로 입을 봉하고 있으니 일상이 무너져서 무미건조한 시간만 축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게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마음은 가까이 두고 몸은 멀리 떨어지라고 하니 그게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것도 아닌데 어디 마음대로 되어야지요.

봉한 입은 양식을 먹을 때만 여니 먹기 위해 입을 여는 것도 서글픔입니다. 그렇게 먹는 양식이 무슨 소화가 되어 영육의 살이 오르는지요. 눈만 빼꼼히 내놓고 사니 이제 눈만 봐도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입을 가리니 사람들이 모두 선해 보입니다. 그리고 보니 입은 좀 흥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남들 험담하고 욕하고 침 뱉고 과음 과식하고 심하면 토해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입이잖아요. 그 입을 가려도 전염병은 사그라들 조짐이 없고 오히려 일파만파로 번져서 이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성당에서도 거리두기 때문에 띄어 앉아 미사를 보니 옆구리로 황소바람이 기어듭니다. 미사가 끝나면 차라도 한잔하면서 정담을 나누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못합니다. 미사가 끝나면 바람 같이 귀가해서 무슨 뚱이랴도 만진 듯 비누로 손을 박박 문질러 씻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새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소중히 지키고 보존하지는 못할망정 하염없이 망가뜨려 결국은 그 대가로 몸쓸 전염병을 얻었으니 입이 있는 들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입 다물라 하셔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가 봅니다. 벌을 받으면 기도하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평이나 늘어놓는다고 화를 내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찌겠습니까. 신심의 저울에 달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명분이 없다고 말없이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이나 내쉬니 선풍기 1단만 틀어도 날아갈 듯한 신심을 가진 간덩이가 배 밖으로 나온 인간은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감히 내놓고 물어라도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이 지속될지 벗어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 질병을 조금이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지요. 이제 봉한 입에서도 먼지가 앉고 곰팡이가 슬어 쿼쿼한 입으로는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 것도 죄스럽습니다. 입이 더러워 입을 봉했다면 앞으로는 더러운 것 먹지 않고 남의 험담이나 욕도 하지 않겠습니다. 말도 가려가며 하겠습니다. 부디 입을 열어 주십시오. 인간들도 고통을 받고 정신을 차렸을 테니 제발 이쯤에서 코로나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정이 많으신 하느님께서도 돌아앉아 외면하시기도 여간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깨물어보면 아픈 손가락인데 모르시는 척 툭 한 번 건드리듯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추신: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들은 가족의 품에서 이별도 하지 못했으니 하느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기억할 선종 사제
김덕신(요셉) 신부
2018년 3월 1일



기억할 선종 사제
석종관(바오로) 신부
1974년 3월 3일



기억할 선종 사제
지대건(야고보) 신부
1990년 3월 5일



기억할 선종 사제
정수길(요셉) 신부
1978년 3월 6일

지구장 본당 방문

일시: 3월 2일(수)

본당: 창녕

일시: 3월 3일(목)

본당: 남성동/ 완월동

교구/본당

신임 소공동체장 교육

일시: 3월 4일(금)

장소: 교구청

신앙대학

일시: 3월 5일(토)~6일(주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우원영(제노베라)

담당판사: 여인석(베드로)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3월 3일(목)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위원회/기관/단체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기 타

효소단식힐링피정

일시: 3월 3일(목)~6일(주일)

3월 17일(목)~20일(주일)

장소: 성모솔숲마을/ 참가비: 25만 원(효소포함)

지도: 문봉한 야고보 신부(솔숲마을원장)

면담 및 영성 상담 가능/ 정원: 11명

문의: 성모솔숲마을 054·373·3955

프란치스코 전교봉사 수녀회 성소자 만남 및 상담

일시와 장소: 전화 면담 후 결정

대상: 국내·외 전교와 봉사에 관심있는

39세 이하 미혼여성

문의: 김 엘리사벳 수녀 010·4732·8247

예수회센터 동영상 녹화 강의(사전 녹화분)

▶ 동영상 링크 발송, 1주일 동안 수강

내용: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꿈을 통한 영적 치유, 성경대학: 요한복음 1,2,3

·나는 믿나이다? 우리는 믿나이다?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재속 맨발 가르멜회 마산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회원 모집

일시: 모임-5월 16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대상: 만 55세 미만 신자

문의: 010·8525·1150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3월 6일(주일) 10:00	서울 본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한국외방선교회	-	-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주식회사 바른
BARUN
도막형바닥재(관급자재 전문)/ 도장공사업
칼라무늬콘크리트/ 벽화 및 디자인

주식회사 바른
(경상남도 전역시공 및 현장설치)
김기수 베드로 문의 : 010-5055-0076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억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제주 3박 4일·전국 2박 3일 성지순례
제주 7곳 각 지역 항공출발 35만원
전국 167곳 수원,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전주, 마산 2박 3일-2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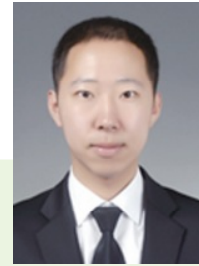
마르코 투어 010-4239-1929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영명공동체

유기농산물 · 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아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신학생 개학인사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 신학생



찬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신학생 대표 김성근 대건 안드레아입니다.

저희 신학생들은 여느 방학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겨울 방학 기간도 교우분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아무런 사고 없이 방학을 잘 마치고 못자리인 광주신학교로 돌아옵니다.

문득,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그 씨앗이 따뜻한 봄날을 맞으면 아름다운 꽃이 된다.”라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 씨앗으로 이 땅에서 추운 겨울인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추운 겨울인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고,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거라 희망합니다. 저희 신학생들은 우리 모두가 이 위기의 시간을 잘 이겨내고 아름다운 꽃을 맺을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양육되어 가는 저희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우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학생들은 이번 학기도 잘 지내고, 다음 방학 때는 지금보다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학기 교구 성경공부 일정

교구 성경사목부에서는 2022년 1학기 성경공부 개강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마산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월 영	3월 8일(화) 10:00	가톨릭 서간
	3월 16일(수) 19:30	요한 복음서
양덕동	3월 7일(월) 19:30	예언서
월남동	3월 8일(화) 10:00	바오로 서간
	3월 10일(목) 20:00	예언서
석전동	3월 11일(금) 10:40	오경1
완월동	3월 8일(화) 20:00	가톨릭 서간
	3월 10일(목) 10:30	가톨릭 서간
산호동	3월 10일(목) 20:15	마태오 복음서
함 안	3월 11일(금) 10:40	요한 복음서
상남동	3월 16일(수) 14:00	지혜여정-예언서1
창원지구		
양 곡	3월 11일(금) 10:4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반 송	3월 8일(화) 10:40	시서와 지혜서
	3월 10일(목) 10:45	은빛(탈출기)
	3월 16일(수) 10:40	바오로 서간
용 잠	3월 10일(수) 19:00	오경1
대방동	3월 8일(화) 10:40	오경2
덕산동	3월 7일(월) 19:30	가톨릭 서간
	3월 8일(화) 10:00	예언서
사파동	3월 7일(월) 20:00	오경1
	3월 11일(금) 10:4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가음동	3월 10일(목) 10:00	바오로 서간
명서동	3월 7일(월) 19:30	시서와 지혜서
중 동	3월 11일(금) 10:40	오경1
중앙동	3월 16일(수) 10:40	은빛(창세기)

진주지구		
본 당	개 강 일	과 목
가좌동	3월 16일(수) 19:30	가톨릭 서간
산 청	3월 11일(금) 19:30	오경1
상평동	3월 16일(수) 19:30	오경1
함 양	3월 16일(수) 19:30	오경2
금 산	3월 8일(화) 10:00	가톨릭 서간
신안동	3월 8일(화) 10:00	역사서1
옥봉동	3월 16일(수) 19:30	요한 복음서
문 산	3월 7일(월) 19:30	루카 복음서, 사도행전
사 천	3월 11일(금) 10:30	가톨릭 서간
	3월 11일(금) 19:30	가톨릭 서간
거 창	3월 16일(수) 19:30	오경2
평거동	3월 10일(목) 20:10	오경2
	3월 16일(수) 10:50	은빛(탈출기)
남 해	3월 16일(수) 10:30	복음서
산 청	3월 16일(수) 10:30	지혜여정-시서와 지혜서1
거제지구		
장 평	3월 11일(금) 10:30	시서와 지혜서
대 건	3월 11일(금) 11:10	가톨릭 서간
북신동	3월 10일(목) 10:00	바오로 서간
지세포	3월 16일(수) 14:00	오경1
태평동	3월 10일(목) 10:30	은빛(창세기)
	3월 11일(금) 19:30	역사서2
고 성	3월 11일(금) 10:30	은빛(마태오)
거 제	3월 11일(금) 10:30	은빛(탈출기)

● 문 의 : 성경사목부 055·249·7025~6



금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중재(탈출 32-34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모세가 산에서 사십 일을 체류하는 동안 산 아래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모세 옆에 머물고 있으므로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분노하시며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할 따름입니다. 듣자 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부재 기간이 길어지자 아론에게 그들을 이끌 신을 만들어달라고 청하였고, 임시 지도자였던 아론은 십계명을 거스르는 일인지를 알면서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론이 금귀고리를 거두어 수송아지 상을 만들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신”이라고 외쳤습니다(탈출 32,4). 아론이 이 신상 앞에 제단을 쌓자 백성들은 그 제단 위에 번제물과 친교제물을 바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지 겨우 한 달 남짓 되었는데 그들은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하신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고 하시며(탈출 32,7), 이 백성을 모두 죽이고, 모세를 통해 큰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는 이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임을 상기시켜 드리며,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 이 백성을 벌하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서 내려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주님께서 주신 두 증언판을 손에 들고 산을 내려옵니다. 우리도 모세와 함께 서둘러 산을 내려가 봅시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느님의 말씀대로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 상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증언판을 내던져 깨 버립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파기되었음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불에 태워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리고는 그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탈출 32,19; 비교: 신명 9,21 [가루를 강물에 버림]). 이 조처는 우상을 모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아론을 문책하고, 레위인들을 주축으로 우상숭배에 가담한 자 3,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백성을 위한 중재 기도를 바칩니다. 그는 주님께 백성을 용서하실 것을 청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직 죄지는 자만이 책에서 지워지므로, 모세에게 백성을 이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라고 명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노로 인해 도중에 그들을 모두 없애버릴 수도 있기에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백성은 슬픔에 빠져 패물을 몸에 다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을 진영 밖에 치고 하느님께 기도드립니다. “제가 당신 눈에 든다면,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알고, 더욱 당신 눈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당신 백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33,13) 그러자 하느님께서 모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느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라고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이 여정에 함께하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요? 왜 그는 하느님의 현존을 간절히 요청할까요? 약속의 땅보다 하느님의 현존이 더 중요한가요? 백성이 꿈꾸는 행복을 주는 것은 약속의 땅일까요? 혹은 하느님이 그들의 행복의 원천일까요? 모세의 간절한 중재 기도에는 하느님만이 이스라엘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통해 얻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십계명과 금송아지

출처: 네이버 블로그-성경 미술관(Bible Art Gallery)

코시모 로셀리(Cosimo Rosselli, 1439~1507)

